

【낙양시와의 교류 ~ 백낙천 57대손의 주량~】

안녕하세요.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.

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오카야마시 국제우호교류도시인 중국의 낙양시를 방문했습니다.

낙양시에서는 낙양 시장과 낙양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과의 회담 등을 통해서 양 시의 새로운 교류촉진을 향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.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시의 관계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아울러 중국의 역사상 9개의 조정이 있었던 곳으로 「구조 고도(九朝古都)」라고도 불리는 품격있는 거리와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룡먼석굴 또한, 중국 두 번째로 큰 강인 황하 등 낙양시가 가지는 깊은 역사의 무게와 웅대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방문이 되었습니다. 그 중에서 특히 인상에 남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
먼저 첫 번째는 낙양 외국어 학교의 환영행사입니다

저의 방문에 맞춰서 일본어 학과의 생도가 200명 정도가 모여 환영식을 개최해 주었습니다.

현대적인 댄스부터 민속무용까지 다양한 공연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

특히 여학생들이 유가타를 입고 「사계의 노래」에 맞추어 춤을 추고 AKB48로 분장하여 노래와 춤을 소개했을 때에는 감격한 나머지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.

두 번째는 밤낮을 상관치 않는 식사와 술 대접입니다.

중국의 술자리에서는 도수가 높은 술을 서로 「건배」를 외치며 다 마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건배의 파도에 휩쓸렸습니다.

특히 인민대표대회 주최의 오찬 연회는 생각보다 격렬해서 각 분과 작은 컵에 (와인 글라스를 작게 축소한 것 같은 잔)에 알코올 도수 53도의 투칸주를 따라 건배를 반복하며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. 그중에 한사람이 백낙천(백거이)의 57대의 자손인 바이취강 인민대표 상무위원 부주임이었습니다.

백락천은 술을 사랑한 것으로 유명하고 많은 시에 술이 등장합니다만 그DNA을 받은 백 부주임도 놀라운 주량. 일본의 대표단과 동료 한사람 한사람과 석 잔씩 건배를 반복하는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저의 자리로 돌아와 석 잔째 건배하려는 것은 보고 그저 많이 놀랐습니다 다음 방문 시 까지는 간장을 단련해야지...

그래도 백 부주임도 아마 오후엔 일을 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